

봉사는 '살아있는 경전'

청암사 승가대학 학인들 김천 노인에 무료급식



청암사 학인들이 김천 자비의쉼터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6월 8일 김천 평화동 '자비의쉼터 무료 급식공양방'. 사미니들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김천사암연합회 사찰이 돌아가면서 매주 목, 금요일 무료급식을 준비하는데, 8일과 9일은 청암사가 맡아 청암사 승가대학 금강회 스님 10여명이 제 자신도 6명과 같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나온 것이다.

청암사 학인들이 준비한 오늘의 메뉴는 쇠고기미역국에 김치찌개, 죽갈무침, 노란 콩자반, 삶은 계란이다. 또, 말랑말랑한 인절미랑 야쿠르트까지 준비했다. 국은 식으면 안 되니까 공양방에서 끓이고, 노란 콩자반과 죽갈무침은 청암사에서 미리 준비했다. 반찬은 모두 학인들이 청암사 텃밭에서 무공해로 재배한 재료로 만들었다.

밥은 청암사 가마솥에서 고슬 고슬 지어 식지 않도록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배식하기 직전에 도감 명관 스님이 공수해왔다. 전날부터 반반의 준비를 갖추고 일찌감치 공양방에 도착한 학인들은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역할을 찾아 움직였다. 금강회

텃밭서 직접 재배한 야채로 반찬

하루 일과 꼼꼼히 기록 '다음'에 대비

회장 혜문 스님은 음식의 양과 재료 확인, 시간체크에 여념이 없고, 서기 현인 스님은 다음 봉사를 위해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그러는 사이 공양방에서는 미역국이 맛있게 끓었고, 공양방에 나오지 못하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배달할 50여개의 도시락이 만들어졌다.

"도시락 보자기는 어르신들이 한번에 풀기 좋게 매듭을 지어야 해요."

학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곳곳에 스며든다.

정오, 배식시간이 되자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세 차례로 나눠 공양을 했다. 스님들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부축해 안내하고, 밥, 국, 반찬이 모자랄세라 부지런히

여분의 음식을 날랐다.

"감사합니다. 스님, 어디서 나왔습니까?" 스님을 만난 반가움에 딱딱 두 손을 잡고 늘어지는 어르신이가 있는가 하면 스님의 무공해 반찬에 공양을 몇 번이고 떨어 막는 어르신도 있다.

준비부터 배식 설거지까지 바쁜 하루였지만 웃음으로 어르신을 대하는 학인들의 모습은 한결같다.

금강회 부회장 남수 스님은 "오늘 하루 어르신들과 하나 되었던가를 점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고, 혜문 스님은 "즐겁고 재밌었다"며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2년째 공양방에서 봉사활동을 해 온 서순옥(태해신·44) 봉사자는 "무료급식이 어느 때보다 조용하면서도 푸근하게 잘 진행됐다"고 만족해했다.

청암사 금강회는 1991년 12월 불우이웃돕기탁

발을 계기로 92년 12월에 정식 발족한 청암사 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의 봉사활동모임이다.

학인들의 심시일만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금강회는 어느덧 모든 학인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학장 지형 스님과 주지 상택 스님의 적극적인 후원아래 심장병 어린이 돕기, 연꽃마을과 양로원 봉사활동, 무의탁노인 돕기, 지역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교도소 봉축 법회 봉행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 김천 무료급식공양방의 봉사활동은 98년 9월부터 시작해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jusun@buddhapia.com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세

류병구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장



대구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모든 역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글귀가 실린 포스터 액자를 만날 수 있다. 회색의 도시에서 물질적 욕망에만 사로잡힌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급급한 시민들에게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잠깐 참 자신을 되돌아보게도 만든다.

이 많은 포스터 액자를 관리하는 주인공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 류병구 지부장(51·사진)이다.

집 한 칸에 조그만 법당을 마련해 놓고, 문서 문화포교의 장에 뛰어들어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가 지역의 대표적인 문서문화포교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끈 장본인이다.

있다. 지난해에는 문화예술단도 창단했다.

"재산은 없었지만 재능을 가진 인적 재산은 풍부하다"는 것이 류 지부장의 자량이다. 순수 포교목적으로 지난해 6월 은해사 솔밭에서 개최한 작은 음악회는 신도와 사찰을 연결하고 화합으로 이끄는 훌륭한 장이 됐고, 지난 초파일에는 연양 보덕사에서 초파일 법요식 일체를 맡아 진행하면서 지역불자들에게 육법공양부터 시작하는 여법한 법요식의 장엄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조계종 포교사 출신으로 사찰과 신도들의 사소한 어려움까지 살피며 돕는 류지부장은 이제 지역불교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길조가 되어 하루에도 수많은 스님들에게서 다양한 문

역사내 포교용 액자 설치 등 문서포교 앞장 문화예술단 창단부터 가정 상담까지 척척

2004년 8월 풍경소리와 인연을 맺을 때는 서울에서 보내준 포스터를 지하철 역사에 붙이는 일만을 겨우 수행할 수 있을 뿐 임원진 하나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발로 뛰어야 했고, 광고회사가 아니냐는 오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류 지부장은 광고를 목적으로 협찬을 하겠다는 사찰의 협찬 제의는 과감히 거절하면서 문서포교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 실행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재정적인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협찬비의 모든 관리는 중앙에 맡긴 채 월 10여만원(협찬비의 50%)만 운영비로 지원받고 있다.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에는 이제 40여명의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회장 김길희)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80여명의 포교위원이 대구지하철 1, 2호선 112개역사와 국철 68개역사에 부착된 포스터 액자를 관리하고 각 사찰 화강실에 염서쓰기의 포교용 액자설치에 노력하고 있다.

또, 지역의 덕망 있는 일곱 분의 스님을 지도위원(위원장 지운)으로 모시고 바른길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의전화를 받는다. '밭에 고추를 처음 심었는데 밭 달라',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수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는 등의 사소한 상담까지도 있고 있는 것.

13년 전 동생의 사업보증으로 모든 물질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만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다시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도움을 주고 있는 류병구 지부장은 6월 17일 오후 3시 동화사 통일 대불전에서 창립3주년을 기념하며 지하철안전운행을 기원하는 법회를 개최한다.

지하철역사의 한 칸을 문화공간으로 내어준 데 대한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회향하려는 것이다. 류 지부장은 법회를 계기로 대구지하철 법우회의 창립과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음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다든 류병구 지부장은 특별한 법원이 없다. 그저 물 흐르듯 흘러갈 뿐.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푸른 잔디 서면 우리도 선수"

대구경북지역 정신지체장애인축구대회 개최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문) 주최 대구경북지역 정신지체장애인축구대회가 6월 1일부터 2일까지 경북 풍기 대한광복 단공원 잔디구장에서 열렸다. 2002년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비롯된 행사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것.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사회성 향상을 돕기 위해 시작된 축구대회는 4년 만에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앞두고 대구경북 10개 기관에서

400여지체장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사진).

1일에는 예선전과 전야제가 열리고 2일에 4강과 준결승 결승전이 치러졌다. 이번 대회의 우승은 장애인올림픽 출전까지 넘보는 대동시온재활원이 차지했다.

기관응원상은 색지를 손에 끼고 응원가까지 준비한 구미장애인복지관이 차지했다. 경북장애인복지관은 4강전이 벌어지는 동안 꼭짓점 댄스를 공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고운사 주지 혜승스님과 영주봉화사암연합회장 성공 스님 의성군 노인복지관장 탄하스님등 지역 스님과 이재욱 지체장애인협회 영주지회장 영주신장장애협회 한봉덕 회장 등의 내외빈이 참가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배지선 기자

"장애인 이동 도와드려요"

경주장애인복지관, 하루전 예약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은 부양가족이나 본인의 차량이 없어 이동에 제약을 받는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병원진료, 은행, 관공서 민원업무, 기타 일상생활에 따른 이용을 도와주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실시한다.

특별운송사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경주시내지역에 한해 운행되며, 이용요금은 10km이내의 기본거리일 경우 1000 10km 초과시 20km까지는 초과되는 km당 100원씩 추가되며, 20km 초과시에는 초과 km 당 200원씩 추가된다.

또, 30분 이상 대기할 때는 1000원의 추가 요금이 적용되며 1시간 이상은 대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하며, 주2회 이상 이용할 수는 없다. (054)742-1477

배지선 기자

합천군 공무원불자회

이진성 회장 취임



합천군공무원불자회 제2대 이진성 회장(사진)의 취임법회가 6월 3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렸다.

2002년 4월 창립이후 4년 만에 2기 출범을 맞으면서 합천군 대표적인 신

행단체로서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진성 신인회장(합천읍사무소 읍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불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해인사 주지 현은 스님은 "법사봉공하는 자세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해인사의 지원과 후원을 약속했다. 합천군 공무원불자회는 김강호 이남숙부회장, 주영석 감사, 강철수 총무 등을 새로운 임원으로 구성했다.

배지선 기자

〈화제의 신간 발간〉 -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성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 책값 50만원 / 157페이지 삽입

건강을 원하든지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몸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는 천하제일의 민중 의술. 기적의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드립니다.

몸 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갑상선,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이상자 등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전립선이 좋아진 분은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며 요실금이 좋아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니 남편 바람날 염려가 없는 신화 같은 기적의 치료법을 공개했다. 맥박 경락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몇 시간 실습 강의만 듣고 나면 천하제일의 명사가 될 수 있다. 정신 분열증, 전간(간질병)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전 세계 의료인에게 이 책을 권유한다

이 책은 영문판, 일어판, 한문판으로 출간해서 전 인류 건강을 위하여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을 전수시키려 한다. 현대 의학계에서 포기한 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체험 사례와 약 제조법을 공개했다.

※ 전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선단제조법과 은 용해법을 공개했다. ※ 선단은 상기되는 열을 하단전에 모아주고 막힌 곳은 뚫어주고 몸속의 독성을 중화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니 여자가 복용하면 순환제요, 남자가 복용하면 팍스 노인도 이십대로 회춘된다.

※ 은 용해수는 몸속의 세균 바이러스를 질식사시켜주며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이 1개월 안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토피성 소양증, 무릎 관절염, 손마디 관절염이 3,4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 사상의학의 팔상 분류법과 체질에 이로운 식품, 해로운 식품, 성격, 적성, 체질따라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이만하면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겠는가?

※ 천하제일의 명사가 되는 과정

- ① 천문을 열고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당신 몸에 충만할 때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이 떠나게 되니 몸이 거뜨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린다.
- ② 환신을 받아 인당이 열려야 당신의 마음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목적지에 발산한다.
- ③ 실습강의 1시간 듣고 나면 당신손으로 디스크 환자를 즉석에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사가 된다.

나는 정부당국에 물고 싶다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환자를 민중의술인이 회복시켰다면 상을 줄 것인가? 발을 줄 것인가?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인가? 의료인을 위한 법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면 민중의술인에게 상은 주지 않더라도 활동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묵과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나는 첨단과학의 의술앞에 공개 검증받고 싶습니다.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원 원장 김영성

■ 본원

- 주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화 : (041)741-4600 / 011-9803-4600

■ 서울 수련원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 010-3129-6278

■ 부산 수련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베르빌오피스텔 1821호
- 전화 : (051)803-5953 / 011-9803-4600

※ 제작번호 : 하나는행 382-810082-33207 김영성